

## 강제환우 실시하고자 하는 목표가 중요하다

봄이 무르익고 있다. 만개한 꽃 사이로 연초록 새싹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다. 지난해 말에 발생한 HPAI로 인해 황폐화되다시피 했던 양계산업이 시간이 지나자 상처만 남고 고통은 잊혀지고 있다. 가격이 좀 상승하여 회복된 양 비춰지기도 하지만 사료비 인상, 폭설 피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내부 상황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우선 살처분양이 가장 많았던 채란업의 병아리 공급현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 산란종계·부회장을 찾아보기로 하여 금월에는 한양부회장 김영환 대표를 만났다.

- 편집자 주 -



계란품질 경쟁시대 도래를 강조하는 한양부회장 김영환 대표

질병발생에 따른 소비위축, 폭설, 사료값 상승 등 채란양계업에 있어서 경영여건을 매우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간 어떻게 농장 경영을 하셨는지요?

**김영환** = 환란 이후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초기에는 정말로 양계업은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12월 23일 이천에서 발생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차단방역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양주에서 추가 발생이 있었지만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질병으로 산란계 살처분이 많았고, 소비 증가로 난가와 병아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영환** = 경기를 진단하는데 한가지 요인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병아리 입추가 적었고, 살처분으로 약 350만수 이상이 매몰되어 계란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노계가 감소하는 구도였고, 사료비가 상승한 점이 반영된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은 소비가 증가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 통계를 보면 '02년 계란생산 총량은 95억개, '03년에는 91억개 발표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보다는 질병발생 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소비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병아리 생산량이 지난해 종계를 40만수대로 유지시키로 하여 이행한 결과 공급량이 다소 감소하였고, 재입식 농가의 입추 수요가 예기치 못하게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공급부족은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아리 가격이 나뻐올 때는 종계를 대개 68주령에 도태를 하게 되지만 72주령 전후로 도태기간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여 약 10% 정도의 종계수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란종계 입추 증감은 실용계 수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병아리 가격이 강세 행진을 한다면 종계수수도 같이 증가하여 향후 과잉생산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안정을 이루기 위한 좋은 대안은 무엇인지요?

**김영환** = 우리나라는 병아리 수요량이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매우 큼니다. 종계는

비수기 40만수대, 성수기50만수대를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탄력적으로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병아리 주문이 증가하게 되면 성수기 수준이 유지되고, 반대이면 비수기 수준이 유지되어 늘 증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문입란을 철저히 고수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현재까지 입란 직전에도 농가에 의사를 확인하고 부화에 들어갑니다. 결국 품질이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이 높아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계란 유통의 특성과 육성비에 대한 압박 등으로 강제환우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사료가격은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품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강제환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김영환** = 강제환우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난가와 맞물려 생산성 보다는 생산기간 연장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예를 들어 60주령에 난 각질 상태가 나빠지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강제환우를 실시하여 45일 후 50% 산란하여 88~90주령경까지 사용할 경우와 환우 없이 80주령 전후에 도태할 경우를 비교해도 계란 총 생산량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난가가 안정된다면 결국 생산성과 품질을 따지게 되므로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강제환우를 적절히 활용하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산란계 병아리 가격 상승으로 채란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양부화장에서 추가로 종계장을 증설하고 있어 적정 종계수수 유지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이란 시선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요?

**김영환** = 종계장은 올인 올아웃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수수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1농장과 2농장에서 사육중인 종계는 칸당 23~24수로 사육중인데 계사가 증설된 후에는 칸당 18수내지 20수를 수용하여 사육밀도를 낮추고 친환경 상태를 만들어 병아리 품질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결국 업계와 약속한 종계수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문입란제를 정착시켜 품질 좋은 병아리가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用) 